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창립 50주년 · 자연보전

이 호 준

명예회장,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1963년 12월 24일 창립되어 2013년 12월 24일로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세월에 대한 느낌이 다르리라 생각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말과 같이 50년이란 세월은 강산이 5번이나 변할 수 있는 긴 세월이라 할 수 있다. 협회 창립 50주년은 현재의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 해당하는 나이로 협회가 가장 활발히 사업을 전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외국의 많은 나라에 비해 100여 년간 늦게 창립되었지만, 창립된 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협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아래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를 “협회”로 사용했으며, 보호, 보존, 보전의 용어도 혼용함을 밝혀둔다.

I. 협회 창립 이전의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실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창립된 1963년에 비하면 50년이 지난 현재의 한국의 자연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협회 창립 이전의 한반도의 자연보호는 우리나라 옛 사회의 자연 숭배 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자연보호는 신라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글을 쓰면서 본 협회 7대 회장인 고 이덕봉 박사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생물학사를 강의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고 정영호 교수도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자연보존 제21호, 1978)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기원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신라 진흥왕 때 신라의 청소년들이 산수가 수려한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심신의 단련과 더불어 무술을 연마하며 자연의 원리를 터득한 화랑도의 정신에서 자연보호의 정

신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시키며 피로를 씻고 풍류를 즐기는 한편,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생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자원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이 공유하고 공동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존해야 하며, 식목과 과수나무의 재배와 보호, 자연경관의 보존 등 자연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인생관이 현재의 자연환경보호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금수강산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비참할 정도로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합병이후 일본은 명목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을 보호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식민지 초기(1910~1919)에 石戶谷勉과 掛場直勝(1912, 1913). 이 조선의 산림식물과 평안북도 운산군 산림식물대를 조사하면서 백두산 주변의 원시림을 벌목할 준비를 하였고, 전국의 산림자원을 수탈하려고 조사를 계속하였다(한국생태학회 30년사, 22~23, 2006). 한편,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조선총독부임업시험장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을 수탈할 준비를 하였다. 1923년에는 조선박물학회를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자원을 조사했으며 동경대 교수인 中井猛之進으로 하여금 한반도 유명산지의 식물상과 식생을 조사하여 백두산 식물조사서를 발간하는 등의 학술활동(한국생태학회 30년사, 70~71, 2006)을 한다고 하였으나, 학술조사라는 미명아래 한반도의 산림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연자원을 조직적으로 수탈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많은 원시

림이 없어졌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송진을 군사용 유류로 사용하고, 세계2차대전시 각종 전쟁물자를 한반도에서 수탈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일제강점기 말에는 자연자원의 황폐가 극에 달했으며, 한반도의 50%가 민둥산으로 사막화 직전상태까지 되었다고 한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본에 의해 황폐화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민들의 가난과 국가의 예산 부족, 정책수립의 미흡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으며 1950년에 발발한 3년간의 6.25 동란으로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또 한 번 수난을 겪게 되었다. 가난과 궁핍에 빠져있는 국민들은 뿔감과 식량문제를 비롯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도벌하는 등 조상대대로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무참하게 황폐화되었으므로 자연보호라는 용어조차 상상할 수도 없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가 수립되면서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과괴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의식주 문제, 특히 식량 구입을 위해 산림의 불법도벌이 만연하였으며, 이 당시 지리산의 울창한 산림도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산림의 도벌행위를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최초의 산림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연자원 훼손방지에 대한 의지는 강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림청을 신설하므로 산림자원 녹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과 그린벨트를 1971년도에 지정하였고, 식목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현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림자원보호를 비롯한 자연보호 정신이 우리나라 민둥산의 산림녹화 성공에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II. 협회 창립과 한국 최초의 자연보호운동 시작

앞에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창립되기 전후의 한반도의 자연보호 실태를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비참할 정도로 황폐화된 상태였으며, 위정자에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자연보호에 관한 관심조차 없었다. 이러한 때에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살리려고 하는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현재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다. 국제적으로는 1948년 발족된 국제자연보존연맹과 연계되어 황폐화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 W.J. 하아트, IUCN의 부총재이며, 미국학술원 태평양과학위원회 위원장인 H. J. Coolidge 박사 등의 권유(강연선, 자연보존 53호, 1986)로 1963년 12월 24일 뜻을 같이 하는 학자 20여명(주로 원로 생물학자)이 모여 우리나라의 자연보존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황폐화된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 현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창립배경이 되었으며(강연선, 자연보존 44호, 1983), 한국 최초의 민간자연보호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이덕봉, 자연보존 25호, 1979; 정영호, 자연보존 35호, 1981; 김준민 자연보존 44호, 1983; 김창환, 자연보존 55호, 1986; 김봉균 자연보존 64호, 1988; 김훈수 자연보존 70호, 1990; 77호, 1992; 원병오, 자연보존 100호, 1997).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협회의 명칭도 여러 번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3년 12월 24일 “한국의 자연 및 자연보존 학술조사위원회”로 조직된 후, 1965년 8월 “한국자연보존연구회”로 개칭되고, 1969년 5월 30일 한국자연보존연구회로 개칭되

면서 1969년 6월 문화공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인성을 받게 되었으며 그후 1974년 2월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로 개칭되고 감독관청이 문화공보부에서 내무부 산림청으로 1976년 7월 이관되면서 국가로부터 공식인정을 받게 되는 한편, 1974년 4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自然保護』 휘호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협회의 노력으로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정부에 자연보호 기구가 설치되고, 각 지역, 직장별로 자연보호회를 구성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훼손,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도, 시, 군, 구청단위로 자연보호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977년 11월 2일 그 후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자연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민간기구인 사단법인 자연보호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5,0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자연보호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978년에는 내무부에 자연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였으며,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부의 자연보호운동시작에 협회가 주도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78년 10월 13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자연보호관계관 회의에 협회 회장(고이덕봉 박사)등 5명이 참석하여 자연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며 당면문제를 건의하는 등 당시의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활발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한편 1980년 12월 내무부 장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이관되면서 한국의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자연보호 10년사, 내무부, 1988년) 1990년 4월 감독관청이 환경처를 이관되었고 1998년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제56조)을 개정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법정법인으로 법인체가 변경되어 1998년 3월 “한국자연보전협회”로,

개칭되고 또 한 번의 자연환경보전법의 변경으로 인해 2006년 1월부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학술위원회”가 1963년 12월 24일 창립된 후 1964년부터 현재의 국립공원인 한라산, 홍도, 설악산에 대한 학술조사와 더불어 1966년 DMZ(판축골)에서 예비학술조사, 1966~1967년 2년에 걸쳐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학자들과 휴전선 인접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자연자원조사와 자연보존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협회 창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이미 고인이 되신 여러분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III. 자연환경보전활동을 위한 협회의 조직, 운영, 회원의 구성

1. 조직과 운영

협회의 창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조직과 운영, 회원의 구성을 비롯해서 감독관청의 변경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63년 12월 24일 “한국의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 학술조사위원회”로 발족됨에 따라 초대회장으로 조복성 박사, 부회장으로 이덕봉 박사와 강영선 박사를 선임하였다. 1965년(2대)부터 1973(6대)까지는 강영선 박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1974년 3월 집행부에 사무국, 기획부, 학술부, 홍보부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1974년 4월 2일 이효상, 이은상을 고문으로 추대하였으며, 총재, 이사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제도가 혼용되었다. 특히 7대 회장(1974~1975년; 1974년 5월

14일 협회 임원 등 29명이 청와대를 예방하여 고 육영수 여사에게 총재 추대의 뜻을 전하는 한편, 1974년 5월 15일 총재로 추대하고, 1974년 6월 11일 총재의 특별하사금을 받음), 8대 회장(1976~1977년, 1976. 5. 14. 현 박근혜 대통령을 총재로 추대) 때에는 총재제도가 도입되었고, 12대, 13대, 15대 회장 때 이사장제도가 부활되고, 13대 회장 때 명예회장제도가 일시적으로 도입된 때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 강영선 박사가 2대~6대까지 이사장으로 9년간, 고 이덕봉 박사가 7대~11대 회장까지 10년간 재임하면서 당시의 한국자연보존협회를 이끌어왔다. 16대 회장(1992년, 원병오 박사)부터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제도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의 협회 조직은 보면 정관에 따라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3개 위원회(기획평가위원회, 생태위원회, 편집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협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부터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전임이사를 명예이사로 추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회원의 구성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에 발간된 회원명부에 의하면 회원의 총인원은 1,551명으로 서울지역 499명, 인천·경기지부 273명, 강원지부 69명, 대전·충남지부 153명, 충북지부 47명, 부산·울산, 경남지부 135명, 대구·경북지부 128명, 광주·전남지부 96명, 전북지부 100명, 제주지부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명부를 검토해 보면 회원의 구성

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회원이 포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회원의 세부 전공은 자연환경보전과 관련이 있는 생명과학과(생물학과) 출신 회원이 가장 많으며, 환경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지리학과, 임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환경생태공학부, 기타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별 회원은 각종 교육기관(대학 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연구소, 산림청, 임업연구원, 환경기술진흥원... 등), 각종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각계각층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전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협회의 주요 사업실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극심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에서 협회가 창립된 1963년 초반부터 또 한 차례의 수난을 겪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의 무비판적인 행동으로 초래된 자연환경 파괴는 생존에 큰 위협을 가져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크게”라는 목표 아래 산

업발달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공해반도, 환경오염, 생태계 또는 자연파괴라고 하는 부산물을 낳게 되었으며, 산업공해 때문에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되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토지이용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식료와 그 밖의 생활자원을 얻기 위하여 농업, 축산업, 임업에 사용된 토지면적이 늘어나는 한편, 시가지나 거주지 등 인간의 생활구역 면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 전 지구상에서 인간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는 자연림이나 자연초원 등의 면적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자연자원의 고갈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협회는 이러한 상태하에서 자연자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학술연구와 보고서 발간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이들 지역에 분포하는 동식물들을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사회의 관심대상이 주된 연구내용이었으며, 이들 결과물은 “자연보존연구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들 연구사업은 1979년 한라산정식물상의 보존실태를 중심으로 한 20과제(초록 3과제 포함)가 제 1집으로 발간되었고, 2002년 21집 발행으로 “자연보존연구보고서”의 발간은 종료되었으며, 본 연구지는 2003년부터 연 4회(3, 6, 9, 12월) 발행되는 “한국자연보존연구지”에 포함되어 발행되고 있다. “자연보존연구보고서”(1979년) 제 1집부터 2002년 제 21집까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제

7집은 금강지역(1985년, 수리 및 수질, 식물성 플랑크톤, 저서동물군집, 대형무척추동물군집, 담수어류자원, 토양미생물, 식물상 및 식생, 철새보호 등 9과제 수행), 제 8집은 영산강지역(1986년, 수리 및 수질, 식물성 플랑크톤, 저서 동물의 분류 및 생태, 대형무척추동물군집, 어류군집, 토양환경, 식물상과 식물군락, 조류 등 9과제 수행), 제 9집은 낙동강유역(1987, 식물성 플랑크톤, 연체동물과 갑각류, 대형무척추동물상, 어류상, 미생물분포, 하계조류, 식물상과 식생, 지질 및 지형 등 9 과제) 등 3대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제 10집(1989년)은 포유류(21종), 조류(54종), 양서·파충류(12종), 어류(28종), 곤충(24종), 식물(39종)에 대한 희귀 및 위기동식물의 현황과 과거의 기록, 채집지, 분포, 서식처와 생태, 보존방안, 표본, 참고문헌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며,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도감을 1989년 발간하였다. 제 17집(1998)은 제주도의 물영아리늪의 지질, 양서·파충류, 화분분석과 습원의 곤충상, 식생을, 제 19집(2000년)은 낙동강 배후습지의 식물상, 균류의 보호관리, 양서·파충류 보전, 담수어류상 보전, 곤충상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 1집에서 21집까지에 나타난 조사대상지는 약 60 장소로서, 한강수계(약 10개 과제), 낙동강(5개 과제), 경기도 수동면(5개 과제), 강화도, 제주도(5개 과제) 등이 가장 많은 연구대상지가 되었으며, 조사연인원은 620여명, 과제는 총 184편이 수행되었고, 주요 연구 대상분야는 식물상, 식생, 조류, 어류, 곤충상, 수질, 식물성 플랑크톤, 토양미생물, 대형무척추동물 등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동식물생태에 대한 종합학술조사와 보고서 발간

이 사업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과 가장 부

합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전국토의 자연과 자연자원의 분포 및 자생실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1964년 한라산, 홍도, 설악산 일대의 조사, 1966년 서울신문사 후원으로 DMZ(판축골)에서의 예비학술조사, 1966~1967까지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와 휴전선 인접지역의 생태학적 연구와 현지답사를 시작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7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개 지역 이상씩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희귀 및 위기 동·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생태계의 보존현황 및 보존대책을 제시하는 등 자연자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자연보전 40년사, 2003년). 소흑산도 종합학술조사(1970년)를 시작으로 제 1호 보고서가 발간된 후 2001년 오대산 국립공원 북사면 일대의 “종합학술조사보고서”제 42호 발간으로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은 종료되었으며, 2002년 충북 충주시 천등산 일대의 종합학술조사부터는 200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한국자연보존연구지”에 통합되어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종합학술조사보고서” 1호(1970년)부터 42호(2001년)까지의 조사에 참여한 총 연인원은 930여명, 학술조사대상지역은 약 56지역, 총 논문 편수는 428편으로 43년간 방대한 양의 종합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종합학술조사대상지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산과 주요 도서들이 망라되었으며, 한반도에서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본 종합학술조사는 큰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

보고서 제 42호까지 나타난 연구 분야를 보면 곤충상(육상, 수서곤충 등 60여회), 식물상과 식생분야(각각 55여회), 지형, 지질, 지리분야(45여회), 조류상(40여회), 어류상(35여회)이 조사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그 다음

이 고등균류(25여회), 양서·파충류(20여회), 포유동물(15여회), 수질(15여회), 식물성 플랑크톤, 미생물, 무척추동물(각각 10여회)로 나타났다.

한국의 생물종은 약 10만 여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에 문헌조사로 밝혀진 것은 약 3만여 종이며, 나머지 7만여 종은 문헌조사결과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한다(환경백서, 환경부 332면, 2007). 이들 7만 여 종이 해외로 방출되어 상품화된다고 하면 한국은 생물주권 확보에 있어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식물생태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1호부터 42호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생물자원들을 비롯해서 한국 미기록종, 희귀동식물, 한국특산종 등은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종합학술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975년도에 발간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종합학술조사와 울릉도와 독도의 종합학술조사(1981년 발간)라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종합학술조사의 경우 6.25동란이 발생 후 1953년 정전협정이 발효되고, 60여 년 동안 민간인 통제지역인 접경지역은 그동안 인간 간섭이 거의 없어 자연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임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원조성이 구체화되면서 DMZ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는 907 km² (남측 449 km², 북측 458 km²), 민간인 통제선에서 남방한계선에 이르는 지역은 1,370 km², 접경지역에는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6,216 km²에 약 656,000명이 거주한다고 한다(환경백서, 환경부 337면, 2007).

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비무장지대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1966~1967년에 서울신

문사 후원으로 DMZ(판죽골)에서 예비학술조사를 하였으며,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학자들과 DMZ인접지역에 대한 2년간의 기초조사가 완료되고, 1968년 1월부터 5년간의 본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무장간첩의 청와대 침입사건으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5년간의 본 조사계획이 중단되었다. 그 후 문화공보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1972년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종합학술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였으며, 학술보고서는 1975년(보고서 제 7호)에 발간하였다. 한편,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국토통일원 지원)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조사, 1990년(문화재관리국 지원)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보고서(1975)에 따라 철원 철통리 철새도래지를 천연기념물로, 원시적 자연자원이 풍부한 대암산과 대우산, 향로봉지역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서부비무장지대 인접지

역의 지질, 동부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식물, 철원 문산지역의 식물군집과 식물상,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식물군락, 식물구계, 산림토양의 미생물분포, 포유동물상, 조류조사, 곤충상(수서곤충 포함), 어류상, 편치불 분지의 성인과 지질, 자연지리, 대암산 고층습원의 식물군집, 자연지리, 철원지구의 지질 등이 주된 조사의 대상이었고, 본 조사를 통해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자연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조사(1975)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 대한 최초의 조사였으며, 환경부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축 보전을 위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환경백서, 환경부, 2012).

1981년 발간(종합학술조사보고서 제 19호)한 울릉도와 독도의 종합학술조사는 1981년

9월 28일 부터 10월 3일까지 각 분야의 전문학자 27명이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식물상, 식생, 조류, 곤충상, 버섯, 해양무척추동물상,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류학적 조사, 독도의 해양저서 생물상의 잠수관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3. 한국생물상연구지

협회가 발간한 “종합학술조사보고서”와 “자연보존연구보고서”, 현재 발간되고 있는 “한국자연보존연구지”에는 지질, 지형, 지리, 식물상, 식생, 곤충상, 어류, 조류, 양서·파충류, 포유동물, 미생물, 고등균류, 무척추동물, 식물성 플랑크톤,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생태학적 조사와 분류학적 조사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생물상연구지”의 경우는 생물상만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생물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승유적지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과 같이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곳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조사자가 임의로 정한 조사대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종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식물상 43과제, 곤충 13과제, 고등균류 7과제, 양서·파충류 4과제, 기타 몇 개의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지는 67지역, 참여한 조사연인원은 218명, 78편의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한국생물상연구지 제 1집이 1996년 발간된 후, 2002년 제 7집을 발간으로 중지되었으며, 한국생물상연구의 내용은 200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한국자연보존연구지”에 포함되어 발간되고 있다.

4. 한국자연보존연구지

21대(2002~2003년) 김진일 회장이 취임하면서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회의 체

제 개편을 가져왔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발간해 온 “종합학술조사보고서”와 “자연보존연구보고서”, “한국생물상연구지”를 통합하여 2003년부터 “한국자연보존연구지”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협회가 특정조사지역을 선정하여 종합학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후진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과제를 선정한 후 연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지역과 과제내용들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모든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 상태에서 협회의 연구비 부족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3년 3월 1권 1호 발간으로 2012년 12월 까지 10권 3,4호가 발간되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1권 2-3호는 천등산(충주시), 2권 1-2호는 계명산(충주시), 3권 1호는 남산(서울), 4권 1-2호는 아차산, 5권 1-2호는 보련산(충주), 6권 1-2호는 국망산(충주), 7권 1-2호는 광교산(경기도), 8권 1-2호는 칠갑산, 9권 1-2호는 오서산(충남), 10권 1-2호는 주흘산(경북)의 종합학술조사 내용이, 위의 각 권 3-4호는 연구비 지원과제와 자유응모과제에 의한 연구내용이 게재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인 천등산을 비롯해서 총 조사 대상지역이 79지역, 참여한 총 조사연인원은 516명, 총 199과제가 수행되었다. 조사 분야는 생태 및 분류학 분야를 중심으로 식물상 25과제, 식생 28과제, 고등균류 26과제, 곤충 23과제, 저서대형무척추동물 20과제, 조류 15과제, 양서파충류 12과제, 지형·지질 8과제, 어류 9과제, 포유류 9과제가 조사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협회가 실시한 종합학술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연구의 대상은 자연경관과

자연자원이 다양하고, 각종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적합한 천연보호구역이나 명승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이 주된 조사대상지가 되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발간된 한국자연보전연구지의 조사대상지를 보면 조사대상지역 79지역 중 대부분이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한 것이 특기 사항이라 할 수 있다.

5. 자연보존지의 발간

협회가 창립되면서 실시한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학술연구와 보고서 발간(자연보존연구보고서), 동식물생태에 대한 종합학술조사와 보고서 발간, 생물다양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동식물의 생물상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발간된 생물상 연구지, 200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한국자연보존연구지와 더불어 자연보존지는 본 협회의 창립목적에 부합되는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다. 자연보존지는 협회가 창립된 1963년부터 본 협회의 홍보와 더불어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전문성과 일반인들까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잡지 발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68년 12월 창간호 “자연보존”을 발간한 것이 시초이다. 2012년 12월까지 160호가 발간되었는데, 그 간의 발행 비용, 저자 선택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60호까지 발행해 온 그간의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자연과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명승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연을 소개하고, 논설, 논문, 종설 등을 통해 다양한 성격의 환경문제(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보호헌장,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환경운동, 환경문제의 국제적 관계..... 등)를 다루며, 자연의 생태학적 접근과 원리, 파괴된 생태계의 복

원,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에 관한 정보와 보존대책,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증식, 각종 강연, 계몽교육, 자연보호운동(캠페인) 등 국민들에게 자연보호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2012년 12월 160호가 발행되기까지 외형적으로 약간의 변화도 있었다. “자연보존”지의 편집위원장(1994~1997)이었던 최영길 교수가 “자연보존” 100호 6면에 “자연보존”의 보존성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창간호의 표지는 흑백인쇄, 4×6배판 모조지로 인쇄되었으며, 한글 명칭은 현재까지 “자연보존” 그대로이다. 그러나 창간호의 영문 명칭은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로 37호까지 사용되었으며, 38호부터 “Nature Conservation”으로 간소화되어 현재까지 이른다. “자연보존”지를 상징하는 logo는 5호부터 사용되었고, “자연보존”지 제자는 10호까지 민태식 박사의 휘호를, 11호(1976년)부터 김사달 박사의 휘호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발행면수는 11호부터 32면, 1년 4회 발행(3, 6, 9, 12월)의 계간지가 되었으며, 40호까지는 36면, 41호부터 현재까지는 50면 내외로 발행되고 있다. 사용된 지질은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생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게재가 없으며, 표지의 사진은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게재되었다(자연보존 100호, 1997).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자연보존”지는 보수성이 강한 면을 볼 수 있다. 발행호수에 따라서는 특집(또는 기획) 내용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47호는 자연보호 활성화 방안, 48호는 한강수계 생태계의 현황과 보존, 51호는 자연보호헌장 정신, 52호는 자연보호교육 등 그 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제목으로 104호까지 24개호에서 다루어졌으며, 113호부터 145호까지는 기획테마로 발행되었다. 113호는 우리나라의 생물표본관리,

115-117호까지는 동서남해안의 자연환경보전, 145호는 생태관광으로 발간되었다. 기획테마의 경우 전문성의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146호부터는 자유제목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한편, 160호(2012년 12월)까지 참여한 총연인원은 1,348명, 총 제목은 1,206편, 등장된 대상 장소(남한의 지명)는 132장소로 “자연보존”지의 방대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연보호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6. 생물자원증식 및 복원사업

동식물의 종다양성은 유전자자원의 다양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어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멸종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본 협회는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을 생물자원보존 측면에서 증식하고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1974년부터 활발히 실시하였는데, 이 당시만하더라도 생물자원 증식 및 복원사업은 거의 전무한 때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1990년 이후로는 생물자원증식·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회가 실시한 생물자원 증식과 복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한국자연보전협회 회원명부, 96면, 2008) 1978년에 제주도 서귀포 천지연에 나도풍란 50본, 풍란 140본, 파초일엽 50본 이식·복원, 1980년에 제주도 서귀포 천지연에 석곡 50,000본 이식·복원, 1980년에 전남 홍도에 나도풍란 100본, 풍란 200본 이식·복원, 1981~82년에 미선나무, 개느삼, 망개나무 등 2,000본 증식하여, 전국 초·중등학교에 무상 분양하였으며, 1983년에 천연기념물 제1호 달성의 측백수림 내

측백나무 400본, 전북지역 호랑가시나무 100본, 송악 100본, 팽팽나무 100본, 충북지역 미선나무 300본, 망개나무 200본, 충남 계룡산 합다리나무 300본, 부산 동백섬 동백나무 300본, 전남 지리산 히어리 900본, 강원 양구지역 개느삼 1,130본, 제주 섭섭에 파초일엽 200본, 박달목서 300본 이식·복원하였고, 1985~86년에 동백나무 300본, 개느삼 530본, 망개나무 자생지의 복원 및 증식사업, 히어리 300본, 제주도 섭섭의 파초일엽 생육지 조사, 1987년에 측백나무 200본, 백량금 200본을 증식했다(자연보전 40년사, 5면, 2003).

주로 희귀·멸종위기에 있는 식물종으로 이식·복원사업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자연보호를 위한 강연회 및 계몽교육

본 협회는 계몽교육을 위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강연회, 홍보사업을 전개하였다. 자연보호운동에 있어서 자연보호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 1회 자연관찰대회 교육을 충북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31회 자연관찰대회 교육(멸종위기동물-CITES 보전)을 실시하였다. 1971년과 1972년에 동아일보와 공동주최로 내수면 보호와 개발에 관한 세미나, 자연보존을 위한 강연회, 1974~1977년까지 9개 시도지부에서 자연보존 계몽 강연회, 1980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자연보호강연회, 2005년 자연보전학술세미나(서울 남산생태계의 현황과 보전방향), 2008년 자연환경보전포럼(자연환경보전정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6회, 2009년 한국형 자연생태관광(강화갯벌체험) 등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5~2006년 환경부 자연환경 안내원 교육(환경부 위탁교육생)을, 1983~현재까지 어린이 자연관찰교육을 실시함으로 총 73건을 수행하였다.

8. 자연보전운동(캠페인)

본 협회가 주관한 첫 번째 사업으로 1974년 당시 김제원 국회의원이 기증한 담수어 10만여 마리를 1974년 5월 18일(제 1회) 소양호에 방사하고, 이 행사는 2회(1975년), 3회(1976년, 당시의 박근혜 총재 참석)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회때 담수 치어 5만여 마리, 3회때 금잉어와 백연어 등 62여만 마리를 방사하고, 기념비도 제작하였다. 4회는 1977년 5월 28일 안동호에서 잉어, 비단잉어, 백연어 등 60여만 마리를, 5회는 1978년 5월 28일 소양호에서 3만여 마리를 방사, 6회는 1978년 10월 6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로 팔당호에서 김제원의원이 기증한 3만 8000여 마리가 방사되어 6회에 걸쳐 총 214만 여 마리가 방사되었다(자연보존 25호, 3면, 1979).

1976~1988년까지는 동아일보사와 공동주최로 어린이 탐조회를 개최하였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 환경 파괴 고발 등을 사진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연보호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의 협조 하에 1980년 9월까지 4회에 걸쳐 자연보호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9년에는 일간스포츠와 공동주최로 대자연답사(자연관찰대회) 개최, 2000~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한 밀렵단속 및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자연자원 보호에 기여하였다.

9.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자연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교육)

본 사업은 환경부의 위탁사업으로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안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명칭은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으로 대학(2년제 대학 이상)에서 동물학, 식물학, 생태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졸업자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각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자연환경안내원은 생태체험이나 탐방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전 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교육인원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을 비롯한 각 사업대상지역에서 배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2004년과 2005년 각 25명, 2006년 27명에게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2004년의 이론교육은 동식물생태학, 동식물분류학, 곤충학, 습지하천지형, 2005년은 소양교육, 숲의 관찰, 습지생태계 보전과 필요성, 야생동물의 특이적 생태, 희귀식물의 보전방안, 조류의 특성, 담수 어류의 보전방안, 인간과 지구, 2006년은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생태관리, 한국식물의 종다양성과 관리방안, 생물 다양성과 식물분포 특성, 곤충의 다양성과 관찰, 수환경과 생태계의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은 국립수목원, 자연사박물관, 월드컵공원, 길동공원, 서울숲, 양재천생태공원, 청계천 등에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10. 협회의 자연보존과 국제관계

본 협회가 1966년 IUCN 9차 총회(스위스 루체른)에 단체회원으로 처음 가입한 이후, 1996년 IUCN 20차 총회(캐나다 몬트리올) 등, IUCN 총회와 기타 국제회의에 30여회 대표단을 파견하므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보호단체들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연과 자연자원을 소개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의 보호활동 등 폭넓

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78년 제 14차 IUCN총회(소련 아슈하바트)에서 본 협회 홍순우 이사가 IUCN의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79년 IUCN 연차이사회(스위스 물게스)에 홍순우 협회이사가, 1980년 IUCN 생태위원회(호주 캔버라)에 원병오 이사가, 1980년 IUCN 세계자연보존 전략회의(스위스 그랜드)에 정영호 이사가 참석하였다. 한편, 문교부 후원으로 1981년 7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생태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한일생태학술대회에 참석한 일본자연보호협회 이사장 沼田 眞 교수를 비롯한 4명의 교수와 한국에서는 본 협회 이덕봉 회장을 중심으로 10명의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1981년 7월 30일 한일자연보호 간담회를 가지고, 자연보호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현황, 개발과 대책, 앞으로의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 협회 회장단(김봉균 회장, 부회장 2인)이 1989년 일본자연보호협회를 방문(일본 동경)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자연보호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그 후부터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관계가 전무하였다. 2007년에는 조선일보와 일본 毎日신문사가 1995년 공동으로 제정한 13회 “한일국제환경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제주도(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발의한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Water-bird Monitoring to Support Sound Management가 채택된 것이 전부이다. 2012년 제주도의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자연보존 국제관계가 다시 재개되기를 바란다.

11. 재미있는 야생동식물 이야기 발간

우리나라는 4계절의 변화에 따라 동식물의 다양성이 비교적 높으며, 최근에는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꽃이나

곤충 등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생기는 여유의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자연속에서 생활하면서 무심코 자연을 대할 때가 많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동식물이 눈에 띄었을 때 여러 가지 호기심과 의문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곤충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지, 빛, 공기, 온도, 수분 등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며 성장하는지, 식물은 빛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무엇에 이용되는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등 많은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재미있는 야생동식물 이야기에서는 꽃이나 곤충들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이 분야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에 의해 여러 가지 야생동식물이 소개되고 있다. 재미있는 야생동식물 이야기는 본 협회가 제 13회 한일(조선일보사와 일본 毎日신문사 주관)국제환경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 1권이 2007년 11월에 발행되었고, 2012년 현재 6권이 발행되었다. 제 1권에서 6권까지 수록된 내용은 우리의 야생동물(포유동물)이야기, 우리의 새, 우리의 곤충이야기, 자작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버섯의 살아가는 지혜, 독 있는 식물, 독종개, 은어, 각시붕어의 삶, 장수풍뎅이, 나라꽃 무궁화, 쥐가 아닌 쥐 땃쥐, 수달의 생활사, 사막의 동식물... 등 수십여 종의 재미있는 야생동식물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1권부터 6권까지 집필전문가는 총 24명이며, 각 권의 면수는 55~88면으로 총 436면이다.

“재미있는 야생동식물 이야기”는 협회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발

행면수도 확대하고, 체제도 정비하여 협회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이 좋을 것 같다.

12. 기타 본 협회의 사업

본 협회의 기타 사업은 협회의 정관에 나타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① 용역사업, ② 지원사업, ③ 기타 발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역사업은 1980년 자연학습원 조성 기본계획(내무부)을 시작으로 1989년(국토통일원)과 1990년(문화재관리국)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조사 연구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년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 2012년까지 총 30여건을 수행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1996년 특정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포스터 제작(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을 시작으로 2000년 자연체험환경교육(경인지방환경관리청)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산업 연수지원사업(환경부) 등 총 20건을 수행함으로 내무부, 국토통일원, 환경부, 문화재관리국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각계 각층의 공공기관, 일반사회 단체에 대해 자연보호에 대한 협회의 노력이 크게 공헌한 바 있다.

기타 발간 사업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자연보존연구보고서(1979~2002년까지), 종합학술조사보고서(1970~2001년까지), 한국생물상연구지(1996~2002년), 자연보존(1968년~현재), 한국자연보존연구지(2003년~현재), 재미있는 야생동식물이야기(2007년~현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간된 것 외에도 설악산의 자연(1980), 한국의 자연(1970), 한국의 희귀 및 위기 동식물도감(1981, 1989), 강원도의 동식물(1980), 경기도의 동식물도감(1982)..... 등 25여종의 발간물과 3종의 포스터를 제작

하였으며, 몇 가지 주요 발간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자연”의 내용은 천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경관지역, 천연기념물을 분야별 전문학자 11명이 국문과 영문으로 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였으며, 한국의 희귀 및 위기 야생동물도감을 1981년 발간(포유류 20종, 양서파충류 12종, 담수어류 32종, 곤충 24종, 식물 118종으로 총 256종)한 데 이어 1989년 2번째로 출간된 한국의 희귀 및 야생 동식물도감은 분야별 전문학자 6명이 포유류 21종, 조류 56종, 어류 29종, 양서·파충류 12종, 곤충 24종, 식물 36종 등 6개 분야 178종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 발간된 설악산의 자연은 설악산의 개관, 지질, 식물, 조류, 어류, 곤충, 자연경관 등을 8명의 전문학자가 분야별로 국문과 영문으로 기술하였으며, 도감형태로 출판되었다.

V. 도약기에 접어든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당면과제

앞에서 협회 창립 50년 동안 협회가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에 기여한 업적을 회고해 보았다.

협회 창립 이전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실태를 비롯해서 본 협회가 한국 최초로 자연보호운동을 선도한 것, 자연보호와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활동(자연 및 자연자원보전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동식물생태에 대한 종합학술조사와 이들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발간, 한국생물상연구지와 한국자연보존연구지 발간), 계몽지로서의 “자연보존” 발간, 재미있는 야생동식물 이야기 발간, 생물자원 증식과 복원사업, 자연보호를 위한 강연회 및 계몽교육, 자연보전운동(캠페인), 자연보존과 국제관계, 협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용역사업과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본 협회가 수행하였으며, 위의 모든 사업과 관련

된 간행물은 약 700,000부(자연보존지 약 640,000부, 자연보존연구지 약 40,000부, 기타 약 20,000부), 팸플릿 및 포스터 2,200,000매를 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연보호에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민간환경단체 350개, 비영리 민간환경단체(법인이 아님) 161개, 총 511단체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단체 중에서 본 협회의 업적을 추월할만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협회가 모든 여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수행한 것만은 아니다. 협회 창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본 협회를 최초로 조직한 선배 학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현재까지 협회를 이끌어 온 역대 회장단과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창립기, 발전기, 성장기를 거쳤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한층 더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도약기에 접어든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지금까지 이룬 괄목할 만한 업적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잘것 없는 사업으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업적에 안주해서도 안되며, 모든 것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면 도약기에 접어든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퇴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의 시급한 당면과제, 다시 말해서 협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위에서 나열한 협회의 업적을 분석해 보면 주로 학술적인 면은 강조되었으나, 자연보호운동을 국민대중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의 강산은 많이 변했고, 세대도 바뀌었으며, 생태계 파괴, 환경파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용어는 유치원생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귀에 익

숙할 정도로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을 몸으로 실천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들 속에서 협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중요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의 당면 과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하리라 생각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협회의 재정 및 기금 확보, 회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배가운동, 협회 자체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문제, 협회 창립 50년 동안 협회의 학술활동으로 축적된 모든 업적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한 국제적인 정보교환사업 추진 등 협회 자체의 대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과 관련된 현실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라든지, 남북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협회의 공동대처, 환경보호운동을 국민대중화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 훼손된 자연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복원, 국제관계 개선, 국내외 많은 환경단체들과의 교류관계, 언론인들과 연합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자연환경파괴현장 고발 등 대외적인 현안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다고 본다. 위에서 나열한 모든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단기간내에 해결되고, 이를 수는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긴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의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당면과제 중 더 시급한 당면과제는 대내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연보호운동을 국민대중화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 스스로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성숙된 단계에 접어든 것과 같이 보이지만, 산업

발달과 경제적인 풍요 속에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관 주도형 자연보호정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새로운 시각에서 자연보호에 대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부 또한 민간 차원의 자연보호운동에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더불어 과감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회원으로 구성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운동을 선도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검토와 더불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당면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연보호협회가 발족된 일본의 경우 20,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과 이들로부터 납부되는 회비와 개인, 단체 또는 기업체들에서 제공되는 기부금을 가지고,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자료 수집, 홍보자료 배포, 교육과 계몽활동 전개, 자연관찰지도원 강습회 및 연수회 개최, 국내외 많은 단체들과의 교류 등을 비롯해서 대규모의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과 1977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시로

는 거금인 2억여 원을 본 협회의 기금으로 하사해 주셨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 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1977년 10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창으로 자연보호운동이 국가적으로 전개되었고,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까지 발표하게 되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을 위해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개인, 단체 또는 기업들 스스로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기간 내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로부터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애착심이 스스로 우리나라 수 있도록 회원들의 철저한 서비스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협회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1977년 10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창으로 전개했던 자연보호운동을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터전인 금수강산을 다시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이 운동 전개를 위한 기금 확보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울러 이 지면을 통해서 현재 이상의 재정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행정당국에 간곡히요청하는 바입니다.